

일본 도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책 작가들 소개 ‘역동하는 한국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전

- 4.18.~6.10.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 9명을 소개
- 일본내 요코스카, 나가노를 순회 후 도쿄에서 전시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을 소개하기 위해 4월 18일(금)부터 6월 10일(화)까지 ‘역동하는 한국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기획전을 문화원 갤러리 MI에서 개최한다.

기획전 ‘역동하는 한국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전은 2000년대 이후 세계적인 그림책 대회에서 수상하고, 영어나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널리 소개되고 있는 그림책 작가 9명(한병호, 박철민, 이영경, 김동성, 김재홍, 이수지, 서현, 이기훈, 이명애)과 그들의 대표 그림책의 원화 100여 점을 선보여 한국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위상을 알리고 일본과의 교류를 복돋기 위해 기획하였다.

본 행사는 2023년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의 요코스카미술관에서 시작하여 2024년 나가노현 이르프 동화관을 순회하여 2025년 도쿄 전시회를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로, 이번 전시회를 끝으로 3년에 걸친 본 순회사업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 그림책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국제안데르센상의 화가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 브라티슬라바 그림책 비엔날레에서 금사과상을 수상한 이명애 작가 등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며,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그림책의 위상이 알려지고, 일본의 그림책 업계와의 교류도 더욱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1. ‘역동하는 한국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행사 개요. 끝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전시담당자	팀 장	하성환 (+81-3-3357-5970)
		홍보담당자	팀 장	조은경 (+81-3-3357-5970)

붙임 1

‘역동하는 한국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행사 개요

□ 행사개요

- (행 사 명)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회 ‘역동하는 한국의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
- (일 시) '25. 4. 18.(금) ~ 6. 10.(화)
- (장 소) 주일한국문화원(일본 도쿄)
- (주 최) 주일한국문화원
- (기획협력) 주식회사idef
- (협 력) 신명호
- (주요내용) 현재 한국의 그림책 세계를 대표하는 9명의 작가의 그림책 원화 약 100여 점 전시
- (참여 작가명/주요작품)



한병호 『황소와 도깨비』, 1999년



박철민 『토끼와 용왕』, 2010년



이영경 『넉 집 반』, 2004년



김동성 『메아리』, 200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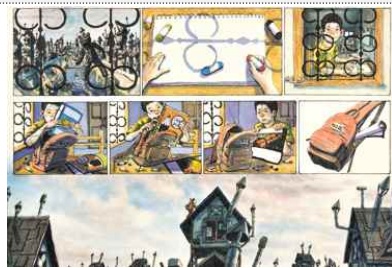
김재홍 『동물 농장』, 2021년



이수지 『여름이 온다』, 2021년



서현 『커졌다!』, 2012년



이기훈 『양철곰』, 2012년



이명애 『내가 예쁘다고?』, 2022년